

- 1. 종교다원주의 배격
- 1. 동성애 반대
- 1. 차별금지법 반대
- 1. 자유민주주의 수호

제 1262호
11월 30일
2024년
토요일

牧羊新聞

총회 상회비 계좌번호 안내

- 국민은행 061701-04-176877
- 예금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 농협 301-0153-7296-01
- 문의 02)2675-5181~3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서울 다-07857 주간 www.mokyangnews.com(목양신문 지면보기 : www.aogk.org) 이메일 : mok2677@naver.com 전화 : 02)2677-9935~7 FAX : 0504)027-0897

제73차 총회 제2회 실행위원회 개최

WCC판박이 WEA서울총회 안돼!!

일부대형교회 WEA서울총회 조직위출범 큰 우려...총회 저지위해 기도



김영준 목사
예하성 총회장
갈릴리온소방교회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총회장 김영준 목사) 제73차 총회 제2회 실행위원회가 지난 11월 14일(목) 오후 1시 은혜와진리교회 신앙성전에서 열려 최근 진행 중인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보고하고 앞으로 진행될 일들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실행위원회에서는 먼저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의 한국교회 현 상황에 대한 진단과 제언을 들었다. 곧바로 드러난 예배는 교단 총무 오세준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서울남서지방회회장 조신남 목사의 기도, 총회장 김영준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요 6:53-56 말씀을 본문으로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예수님은 살과 떡과 피를 주시고 이를 먹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으며 이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져서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신다고 약속하셨으며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이며 이를 먹고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 하신다 약속하셨다"고 전하고 "말씀에 올바르게 설 것"을 강조하고 회원들을 축복했다. 이어 전임총회장 김인찬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모두 마치고 곧바로 회의에 들어갔다. 2부 회의는 총회장 김영준 목사 주재로 열려 서기장동근 목사의 회원정명, 총회장 김영준 목사의 개회선언, 총무 오세준 목사의 총무보고 순으로 이어졌다.

오세준 목사는 24년도 여교역자국 추계세미나, 25년도 목사고시 대상자 오리엔테이션, 제2회 한국교회날은 오프라인 참여, 타교단 가임 교역자 연수교육, 제12차 전국사모회 연합대회 등을 보고했으며 제1차 정기총회 목사의 수입보고, 회계 백영자 목사의 지출보고가 이어졌다.

결의 및 안전도의 사항으로 교역자가입 청원, 전도사 임명 청원이 결의 되었으며 기타사항으로 12월 19일(목) 사이버신학연구원 졸업예배가 개최됨을 보고했다. 실행위원들은 일부 대형교회에서 WEA서울총회 유치에 조직위를 출범시키는 등 WCC와 판박이인 WEA총회가 서울에서 개최되어서는 안 된다며 한 목소리로 기도와, 차별금지법 제정저지를 위해 법안이 폐기되도록, 북한의 무모한 도발이 중단되도록 한·미동맹, 한·미·일 안보 공조 강화 등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 내에서의 세심한 감염병 예방에 더욱 힘을 쏟을 것을 강조했다.



임원배석

“WEA 지지 인사들 한국교회 앞에 사죄하라”

한기총, “WEA총회 개최 중지하라”



정서영 목사
한기총 대표회장

(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정서영 목사/사진)는 지난 11월 11일(월) 한국교회 분열을 가중시키는 WEA서울총회 반대한다"라는 성명을 내면서 WEA에 대한 신학적 검증과 종교 다원주의 의혹에 대한 해명이 우선이라고 천명했다.

성명서는 "자리와 명예에 욕심을 내는 일부 목사가 WEA총회를 한국에서 개최하는 취지를 통해 한국교회의 분열을 가중시키는 광명된 행동을 하고 있다"라며, "2025 WEA서울총회 조직위원회가 11월 15일 출범 감사예배를 한다고 밝혔으며, 설교는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이고 WEA서울총회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은 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가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WEA 사무총장(2024년 3월 사임) 겸 신학위원장 슈르마하의 종교 혼합주의, 종교 다원주의적인 행동에 대해 아무런 입장표명도 없고, 더욱이 한국교회 성도들은 WCC=WEA라는 인식이 가득한 데도, 설명조차 없이 WEA서울총회를 개최한다고 하는 것은 한국교회를 기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한국교

회가 분열되든 말든 자신의 명성만 높이면 된다는 이기주의가 깔린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토로했다.

성명서는 이어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WEA 사무총장의 신학적으로 불분명한 모습, WEA의 여타 종교 다원주의적 행태로 인해 관계를 끊었다. 그러나 과거 한기총이 WEA총회를 개최하려고 할 때만 하더라도 WEA측은 화합되고 하나된 한국교회에서 총회를 치르기를 원했지, 분열을 일으키는 총회를 하려 하지 않았다"라며, "WEA의 종교 다원주의적 의혹이 더욱 높아진 지금, 몇몇 목사들에 의해 한국교회 갈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WEA총회를 개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한국교회가 분열하는 모습을 좌시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성명서는 계속해서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와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조직위원회 구성을 즉각 중단하고, 출범 및 WEA총회 개최 계획을 중지하라. 총회를 열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WEA에 대한 신학적 검증이 우선되어야 하고, 한국교회 앞에 WEA의 종교 다원주의 의혹에 대한 해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며, "그리고 난 후, 한국교회가 WEA총회 개최를 원하는지 공론화하여 의견을 묻는 첫

단계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2013년 WCC총회 개최로 인해 일어났던 분열보다 더 큰 분열과 반대에 직면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성명서는 또 "더욱이 오정현 목사가 소속된 예장합동의 경우, WEA의 신학적 문제로 인해 교류 단절의 현안까지 나왔지만, 교류하지는 과거의 결정이 없었기에 단절이라는 표현은 사용하기 적절하지 않다며 대신 WEA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계속된 연구를 하라고 결의가 되었다. 여전히 WEA에 대한 신학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는데, 소속 목사가 WEA총회 개최에 적극적인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했다.

성명서는 끝으로 "나아가 WEA총회를 논의하고 결정했던 WEA 측 인사들도 한국교회 앞에 사죄하라. 과거에는 하나되고 화합된 한국교회에서 총회를 개최하기 희망했으면서, 지금에 와서는 재정만 지원된다면 한국교회의 갈등은 나 몰라라 하고 선 한 총회를 개최하겠다고 하는 것이 말이나 되는가! 하나 됨을 이끌어야 할 교회 지도자가 맘 앞에서 분열에 눈감는 거짓된 행동은 추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7인 7색 강렬하고 은혜로운 복음 선포

예하성 부흥사회

순복음참아름다운교회 가을부흥성회

교단부흥사회(회장 김건수 목사)는 지난 11월 10일(주일) 저녁부터 11월14일(수)저녁까지 천안 순복음참아름다운교회(담임 안병찬 목사)에서 오전과 저녁, 하루 2번씩 총7회에 걸쳐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라는 주제로 가을부흥성회를 개최했다.

예하성 교단가임 기쁨 및 교회와 성도들의 심령 부흥을 위해 교단 소속의 7명의 목회자들을 강사로 초빙하여 매 시간 7색의 강렬하고 은혜로운 복음이 선포되어 많은 성도님들이 큰 도전을 받았고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요”(마 5:6)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여 죄를 범한 인간에게 사랑과 저주가 선고되었습니다. 죄는 인간의 생명과 행복에 치명적 손상을 초래하는 원인입니다. 그러므로 손상과 고통과 죽음이 없는 세상이 되려면 죄가 제거되어야 하고 의로운 사람만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천국이 바로 그곳입니다. 이 세상은 언젠가 종말이 옵니다. 그리고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 날에 의인과 악인이 분리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생각하면서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요”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의에 주리고 목마르이란 ‘영적인 갈망’입니다. 의는 육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이며, 세속적인 것이 아니고 신령한 것입니다. 이삭의 아들 쌍둥이 형제 중에 욱신의 능력으로 인해 자신만만했던 에서는 세상적인 것에 대한 욕망은 강하였으나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아벨 때부터 어머니 주위를 맴도는 생활을 했던 아담은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과 복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갈망했습니다. 아담이 에서를 속여 장자권을 획득하고 아버지에게 가서 축복을 받기 위해 취한 행위는 온당치 못하지만 그가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태도는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하브라사 12장에 기록하기를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히 12:16,17) 하였습니다.

둘째, ‘주리고 목마른’ 사람처럼 의를 사모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주리고 목마른’이란 단순한 동경심이나 막연한 기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굶어 죽어가는 사람의 굶주림과 같으며, 지금 마시지 않으면 죽게 될 사람의 갈증과 같은 것입니다. 아담이 압북 강나루에서 방증에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면서 축복을 갈망하였던 그 심정으로 우리가 의를 사모하여야 합니다. 아담이 악착같이 붙들고 축복을 구하니 하나님의 사자가 아담의 엉덩이뼈를 치므로 엉덩이

뼈가 탈골되었습니다. 그런 후에 아담에게 축복하였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악착같이 매달린 그 자세를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셋째, 의에 주리고 목마르이라는 말씀에서 ‘의’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은 날 때부터 죄성(罪性)을 가진 죄인으로 나게 됩니다.(롬 3:10,23)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종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 형벌에 처하게 됩니다. 지옥 형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의롭게 되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란 도덕적인 의, 행위로 말미암는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는 죄를 한 번도 짓지 아니한 상태를 말합니다.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말합니다.

넷째,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요”란 한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판결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죄인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의롭다고 판결하여 주십니다. 진실로 복된 소식이며 기이하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의롭게 되는 길은 매우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예수 믿는 자는 의롭다.” 이는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판결입니다.

“주리고 목마른”이라는 낱말은 현재적이고 지속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의를 사모하는 것은 한 순간만이 아니라 현재적이고 계속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의에 주리고 목마른’ 상태는 의인답게 살려고 갈망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의인답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게 됩니다. 날마다 의로운 자답게 살도록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런 생활을 하다가 마침내 의의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와진리교회)

동부전선 을지부대 최전방 00중대 위문

군선교위원회 말씀전하고 자장면직접 만들어 봉사

군선교위원회(위원장 박순영 목사, 국장 정석현 목사)는 지난 11월 12일 (토) 을지부대 최전방 00중대를 방문하여 장병들이 요청한 따뜻한 자장면을 안보지킴이 봉사자들과 함께 직접 만들어서 제공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장병들을 위문했다.

군선교 위원들은 장병들에게 추운 겨울을 무사히 잘 지내고 그들에게 주어진 경계근무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잘 감당해 줄 것을 당부하며 신앙생활도 열심히 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장병들에게는 군 생활이 결코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경험하지 못한 것을 단체생활에서의 소중한 사회성을 체험하므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건장한 군인이 됨은 물론 투철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무장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새로운 인생을 개척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갈 것을 당부했다.

군선교 위원과 봉사자들 일행들은 험한 산악도로를 달려 00중대에 도착한 후 지휘관의 따뜻한 영접을 받았다. 지휘관은 이곳까지 오셔서 장병들을 위문해 주시고 격려

해 주신 것을 마음을 다해 감사했고 장병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해 달라고 정중히 부탁하고 식사 준비하는 동안 박순영 목사는 장병들과 함께한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수 1:6-9 말씀을 중심으로 한 설교를 통해 두려움을 갖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앞에 놓여 있는 장애물을 건너갈 수 있는 용기를 갖고 전진해 나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점심 식사 시간에는 맛있는 자장면으로 함께 식사를 나누고 장병들은 준비해 주신 분들에게 환호성으로 감사의 표시를 전하고 경계근무를 잘 수행하겠다고 화답했으며 약 00명이 부대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많은 병사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했다. 이 자장면 봉사는 경기남지방회에서 후원해 주었고 안보지킴이 봉사단이 음식 조리를 위해 수고했으며 봉사자들이 필요한 신앙서적과 위문함을 얻을 수 있는 설교집을 부탁했으며 협소한 공간에서 운동할 수 있는 배드민턴을 후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군선교 위원을 비롯 일행들은 늦은 가을 경치를 구경하며 귀가했다.



진리의 복음 전파와 주님께서 맡겨주신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힘을 다해 충성할 것을 결단하는 값진 기회가 되었다. 이번 성회의 강사로는 전임총회장 배진기 목사를 비롯 전임총회장 김인찬 목사, 전임총회장 김용

덕 목사, 전임총회장 신재영 목사, 전임부흥사회장 엄기설 목사, 교단 재무 최정식 목사, 교단 총무 오세준 목사 등의 강사진이 설교를 통해 은혜와 전리가 충만한 시간이 되었다.

성서공회, 우크라이나에 성경 발송

한국교회 후원으로 6·7차 두 차례 6,780부 보내

대한성서공회(이사장 김경원 목사)는 경기도 용인시 소재 반포센터에서 지난 11월 8일(6차), 11일(7차) 두 차례에 걸쳐 한국교회의 후원으로 '우크라이나어 성경' 5,280부와 '우크라이나어-헝가리어 대조 신약 성경' 1,500부를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발송했다.



발송된 성경은 우크라이나에 있는 우크라이나 사람들과 헝가리에 있는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헝가리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피해 온 약 6만 명의 난민이 거주하고 있어 헝가리성서공회 또한 이들에 대한 성경 지원을 요청했다.

아나톨리 레이키네츠 부총무(우크라이나 성서공회)는 현지 상황을 보고하며 "지난 두 주 동안 아이들은 학교보다 방공호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매일 죽어가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전쟁 동안 저는 성경을 찾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성경을 요청하는 군인에게 성경을 전해주자 그 군인은 성경에 입을 맞추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다. 성경은 전쟁 가운데 희망과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라고 소식을 전했다. 이에 따라 공회는 한국교회의 후원으로 우크라이나에 7차례에 걸쳐 성경을 발송했다. 1차로 '우크라이나어 요한복음' 176,800부를 2022년 4월 25일에 발송하였고, 2차로 2022년 5월 29일에 '우크라이나어 요한복음' 176,800부를 발송했다. 2022년 7월 5일에는 3차로 '우크라이나어 성경' 2만 8천 부가 발송되었으며, 2022년 12월 15일에 4차로 '우크라이나어 성경' 1만 1천 2백 부가 발송되었다. 2023년 4월 21일에 5차로 '우크라이나어 성경' 16,800부가 발송되었으며, 이번 6차, 7차 발송까지 합하여 현재까지 우크라이나어 성서 총 416,380부가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위해 보내졌다. 계속해서 한국교회와 협력하여 우크라이나에 성경 보급을 이어갈 예정이다.

목회자 가정 수도·전기 끊은 중국

중국의 계속되는 기독교 탄압에 우려 표명

핍박받는 전 세계 기독교인과 동역하는 순교자의 소리(대표 현숙폴리)와 순교자의 소리의 중국 사역 파트너인 '차이나에이드(China Aid)'는 "중국 당국으로부터 가혹한 핍박을 받고 있는 청두시 '이르네 연약교회' 우우청 목사 가족이 지난 10월 17일, 수도와 전기가 다시 끊어진 뒤,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다시 다른 곳으로 이사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밝혔다.



우 목사 가정에도 수도와 전기 공급이 중단된 이번 사건은 지난 9월, 우 목사님과 다른 세 명의 이르네 연약교회 지도자가 성찬식을 인도했다는 이유로 14일간 구금된 이후 취해진 조치이다. 현숙 폴리 대표는 "중국 당국이 지난 2018년 12월 9일, 청두시 이르네 연약교회의

에 우 목사의 집에 전기 공급을 또 중단한 바 있으며, 10월 16일 오후에는 수도까지 끊었다"라며, "이에 따라 목사님은 현상 사진을 찍어 경찰에 신고했다"라고 밝혔다.

현숙 폴리 대표는 또 "우 목사님은 자신의 가족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교회 형제자매들에게 부탁했다. 또한 목사님은 타지역으로 이사하도록 강압하는 당국의 새로운 핍박을 잘 이겨내고, 박해자들을 그리스도의 온유함으로 대하고, 마음에서 분노를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말했다.

현숙 폴리 대표는 우 목사가 개인적으로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세계에서 가장 심하게 핍박받는 교회를 묵화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며 많은 도움을 바란다고 요청했다.

제27차 부흥과 회복-목회세미나 개최

전도는 각 교회의 사역이 아닌 모두의 사역

비전교회와함께하기운동본부(회장 김진호 목사)가 주최하고 기독교대한감리회 선교국이 주관한 '제27차 신바람 목회세미나'가 지난 11월 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로 소재 대림교회에서 열려 교회 성장에 밑거름을 도출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말을 통해 "지도자가 다시 힘을 내야 교회도 부흥할 수 있다. 비전교회의 성장이 건강한 교회 성장의 길이다"라며, "하나님은 시대마다 지도자를 세우셨으며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지도자들이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목회자들은 이 자리가 도전과 격려의 자리가 되고 교회 성장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날 개최에는 사무총장 원종희 목사 사모로 총무 이광호 목사의 기도, 대림교회 강득한 목사의 설교, 회장 김진호 목사의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국내 선교부장 홍석민 목사는 특강을 통해 "선교국은 부흥과 회복을 위해 관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사회 약자를 위한 정책, 북한 정책, 탈북정책, 환경 정책 외에도 어려운 목회자들과 개척하는 목회자들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겠다.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어진 세미나 1강은 홍기용 목사(로렐교회)가 '열정과 헌신으로 이어진 14년의 여정'이라는 제목의 강의를 했다. 홍 목사는 "지역에 맞는 선교를 해야 한다. 로렐교회는 지역 주민들과의 교류를 통해 전도의 열매를 맺었다."

한장총 신임 대표회장에 권순웅 목사 선임

제42회 한장총 정기총회 상임회장에는 이선 목사



제42회 한장총 정기총회가 지난 11월 13일(수)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그레이스홀에서 총대 220명 중 총측 113명으로 개최된 가운데 이날 대표회장 선거 등 각종 회무가 처리됐다. 이날 제42대 한장총 대표회장에 권순웅 목사, 상임회장에 이선 목사(새로운중앙교회, 예장 백석)가 박수로 추대됐다. 한장총 선거규정에 따르면, 대표회장과 단독 임후보한 상임회

장은 소견 발표 이후 박수로 추대할 수 있다. 권순웅 목사는 이날 소견 발표에서 "빠대 있는 신앙을 추구하겠다. 첫째 빠대는 개혁 신앙과 장로교 신앙이다. 이를 기초로 살림 부흥으로 한장총을 섬기고자 한다"며 "둘째 빠대는 연합이다. 연합의 정신을 갖고 모두 하나로 모이는 한장총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아울러 전 세계에서 일고 있는 K-컬처 등 한

류 붐의 흐름 가운데 한국 장로교도 K-컬처로 이목을 받는 상황에서 한장총이 이러한 시류를 잘 살려 전 세계의 부흥 운동을 주도하겠다"고 했다.

이선 목사는 "상임회장으로서 대표회장을 잘 보필하고 섬겨 우리 한장총이 하나 돼 25개 교단과 잘 연합해 발전하도록 겸손히 섬기겠다"고 했다.

신임 임원진은 아래와 같다. 사무총장 이석훈 목사(백석), 총무 강동규 목사(개혁선교), 협동 총무 박용규(함동)·정성업(합신)·김종명(백석)·이훈삼(기장)·김고현목사(보수), 서기 장인호 목사(대신)·부서기 김명준 목사(호헌), 화목서기 조세영 목사(개혁개신), 부회록서기 김종인 목사(예장), 회계 김재선 장로(합신), 부회계 김경환 장로(함동), 감사 김영찬 목사(한영)·김순귀 목사(개혁)·이홍섭 장로(대신).

'생생정보톡' 키트 출시 기념 무료 배포

국내 최초 생명나눔 커뮤니케이션 키트

(재)사람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사장 박진탁 목사)이하 본부는 서울특별시 소재의 지원으로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 제고와 생명나눔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생명나눔 커뮤니케이션 키트, 생생정보톡'을 출시했다. 키트는 장기기증 희망등록자가 자신의 가치관과 함께 생명나눔의 의미 및 정보, 장기기증인의 미담까지 가족들과 나눌 수 있도록 구성되었으며, 장기기증 희망등록자라면 누구나 본부 홈페이지에서 키트를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본부는 지난 5월부터 장기기증 희망등록자 351명과 미등록자 428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희망등록자 중 44%의 사람이 평소 이야기적인 삶의 가치관이나 사

회 기여 욕구가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다. 또한 미등록자 중 32%는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로 '장기기증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 부족'을 뽑으며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에 본부는 장기기증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참여율을 높이고자 삶의 가치관과 함께 장기기증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가족들과 나눌 수 있는 생명나눔 커뮤니케이션 키트 '생생정보톡'을 제작해 배포하기로 했다.

첫 번째 활동 '가치 TALK'에서는 가치 빙고 게임을 통해 참가자들이 삶의 가치관을 알아보고, 가족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진다.

두 번째 활동 '기억 TALK'는 리멤버 카드를 활용해 참가자들이 마지막 순간 가족들의 기억 속에 어떤 사람으로 남고 싶은지를 기록한다.

예성, 제1회 성결 한마당 축제

총회 중심의 대규모 바자회는 처음

예성교대한성결교회(예성·총회장 김만수 목사) 총회가 주최하고 예성협동조합과 성결대학교생활협동조합이 공동주관한 사랑의 바자회 '제1회 성결 한마당 축제'가 지역사회와 유관기관 등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지난 11월 8일(금)부터 9일(토)까지 성결대학교 대운동장에서 개최됐다.

이날 축제에는 예성교대한성결교회(예성·총회장 김만수 목사) 총회가 주최하고 예성협동조합과 성결대학교생활협동조합이 공동주관한 사랑의 바자회 '제1회 성결 한마당 축제'가 지역사회와 유관기관 등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지난 11월 8일(금)부터 9일(토)까지 성결대학교 대운동장에서 개최됐다.

처음이다. 이를 위해 총회는 지난 10월 6일부터 준비에 들어가 김윤석 목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사를 준비해 왔으며, 지난 10월 12일에는 안성중앙교회에서 발대식을 갖고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다짐한 바 있다.

한편, 이번 바자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교단차원의 대규모 행



특히 둘째날 메인행사에서는 본부장 김윤석 목사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축하공연, 매직쇼, 남북통일예술단 공연, 맑은물소리 색소폰 찬양단, CCM 가수인 함부영과 시와 그림의 찬양, 우리동네 노래자랑, 폐회식 및 경품권 추첨 등이 진행되어 성결가족들의 화합과 친교를 다지는 큰 잔치마당이 됐다.

그동안 지방회나 개교회 차원의 소규모 바자회는 여러 차례 개최된 적이 있으나 총회가 중심이 되어 산하기관과 지역사회 등이 함께 참여하는 대규모 바자회는 이번이

사로 안양시와 의왕시, 안양시기독교연합회를 비롯한 관내 5개 복지기관 등이 참여했다. 특히 바자회에서는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친환경 제품들과 고령화시대에 맞는 건강보조식품, 운동용품, 의류, 각종 생활용품 등 국내 제품을 중점적으로 홍보하며 판매했으며, 장바구니 사용 캠페인을 통해 환경 보호의 중요성도 함께 강조했다.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에 생리대 지원

아이소이, '소이로움 건강한 기부 프로젝트'의 일환

국제개발협력NGO 지파운데이션(대표 박종관)은 아이소이(대표 이진민)가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을 위해 약 7,000만 원 상당의 생리대 7,000개를 기부했다고 5일 밝혔다. 아이소이의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인 소

이로움은 '소이로움 건강한 기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프리미엄 유기농 순면 비건 생리대 중형 3,500개 및 대형 3,500개를 기부하였다. 소이로움은 매일 28일을 '소이로움 데이'로 지정하여,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고객

이 생리대를 구매함과 동시에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고객과 함께하는 기부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소이로움은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이번 기부를 결정하게 되었다. 전달된 생리대는 생리대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에게 전달되며, 일부는 초경의 날을 기념하며 제작되는 키트 구성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지파운데이션과 아이소이는 이를 통해 많은 여성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

아이소이 이진민 대표는 "생리대 지원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지파운데이션에 모든 여성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소이로움 생리대를 전달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라고 밝혔다.



"저출산 문제의 본질은 반성경적 가치관의 확산"

한국복음주의의료인협회, 광주광역시에서 정기 세미나 개최

한국복음주의의료인협회(이하 한복의협)가 주최하고 예장합동 전남노회교육부가 주관한 2024 한복의협 정기 세미나가 16일 오후 광주동명교회(담임 이상복 목사) 1층 비전홀에서 '반성경적 가치관과 저출산의 위

기'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세미나는 신명섭 원장(한복의협 회장, 성누가회 대표)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맹연환 목사(사회대체책임연대)가 인사말을 전했다.

그는 "1970년 우리나라가 너무 어려울 때 인구 억제 정책을 펼치면서 '댈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고 잘 키우자' 등의 정책을 펼쳤는데 나중에 정부에서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못지않다'고 했다.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며 탄식한 바가 있다"며 "정부의 정책 발표 이후 1970년 100만 명 출산 시대가 2012년 반토막이 났다. 10년이 지난 2022년에 또 반토막이 났다. 이대로 간다면 2070년 대한민국의 인구는 3천만 명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생명의 말씀

목표는 주님을 위하여 세워라

창세기 25:1~11



양정섭 목사

평안교회 (사)한국기독교개혁교회연합 대표회장

우리들의 목표는 오로지 주님을 위하여 '현신'을 해야 합니다. 그 '현신'이라는 뜻은 '하나님께 내 뜻을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가 죽고 난 후에 후처를 두게 됩니다. 그 후처가 '그두라'라는 여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소유를 주고,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주고 동쪽으로 가서 살게 하여 갈등의 소지를 없앴으며,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어 사라가 장사된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는데 그것은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약속을 이루시는 시작이었습니다.

첫째로 목표가 풍성하도록 도와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1~4) 아브라함은 다시 아내를 맞이하였습니다. 이름은 '그두라'입니다. 그두라

는 시므란과 욱산과 므단과 미디안과 이삭과 수아를 낳았습니다. 욱산은 스바와 드단의 아버지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후처 그두라를 취하여 6명의 아들들을 낳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 땅의 티끌 같이 많게 하시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후사가 많을 것이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목표가 풍성하도록 도와주심을 믿어서 큰 믿

다. 선지자로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왕인 사울왕을 만들 때에 큰일을 하게 됩니다.

둘째, 목표를 위하여 갈등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5~6) 아브라함은 자기 재산을 모두 이삭에게 주었습니다. 하지만 죽기 전에 그두라에게서 얻은 아들들에게도 재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가 그 틈을 타서 시기하고 질투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는 불신의 시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배신을 하고, 미워하고, 질투를 일삼고 그러다가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우리들은 서로를 위하고 협조하여 상처를 감싸주어야 합니다. 주님

이삭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을 막벨라 굴에 장사시켰습니다. 이 굴은 마르데 동쪽 예브론의 밭에 있었습니다. 예브론은 헷 사람 소할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밭은 아브라함이 헷 사람에게서 산 밭이었는데 아브라함은 그곳에 아내 사라와 함께 묻혔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민족을 이끌어야 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에게 힘을 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여호와 군대장관을 보내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여 분배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여 목표를 이룰 수 있게 하였습니다.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표를 이루려면 하나님과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날마다 끊임없이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굴복시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칠 때 하나님의 도움으로 목표가 이루어집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들의 목표가 풍성하도록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들의 목표를 위하여 다른 사람과 갈등을 없애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목표를 이룰 때에 우리들의 삶이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불신의 시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배신을 하고, 미워하고, 질투를 일삼고 그러다가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우리들은 서로를 위하고 협조하여 상처를 감싸주어야 합니다.

주님의 백성으로서 이웃을 먼저 사랑으로 대하고

치유하며 보살펴 주어야 합니다.

죽을 이를 수가 있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자식을 달라고 서원 기도를 합니다.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하나님께 맹세를 하였고,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한나'에게 아들인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습니

즉,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소유를 주고,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주고 동쪽으로 가서 살게 하여 갈등이 없도록 행하게 하여 아브라함과의 맺은 목표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혜로 이삭의 이복동생들에게도 재산을 분할하여 잘 살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재산이 넘치면 악마

의 백성으로서 이웃을 먼저 사랑으로 대하고 치유하며 보살펴 주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목표를 이루어야 합니다.

(7~11)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평안히 살다가 숨을 거두어 자기 조상들에게로 돌아갔습

논평

한국교회언론회

나라를 위태하게 하고 국민을 무시해도 되나

최근 우리 사회를 돌아보면, 매우 위험하고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은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된다. 지난 9일 민주노총은 서울 도심에서 윤석열 퇴진 집회를 열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과 충돌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경찰 105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쌍방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민주노총이 현재 하고 있는 집회도 국민들이 뽑은 국가의 지도자이다. 그런데 자신들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그리고 세력만 믿고, 대통령을 퇴진하라는 것은 국민들과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민주노총이 시위를 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 지난 6일 간첩 사건에서 4명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은 징역 15년의 중형을 받았다. 다른 사람은 각각 7년과 5년의 형이 선고되었다. 그중에 총책을 맡은 사람은 노동계에서 오랫동안 암약해 왔는데, 평택 미군기지, 오산 공군기지, 평택화력발전소, LNG 저장탱크창고와 배치도 등 국가 기간망 마비를 위한 북한의 지령에 따라 활동해 왔다.

그런데 이들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몸담고 활동하였다. 이곳에서 조직국장, 기획국장, 교육국장, 조직쟁의국장,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금속노조 부위원장 등 핵심 직책을 가지고 대남혁명을

대행해 온 것이다. 노동자를 대변한다는 민주노총이 북한 정권을 대리로 하여, 국가 전복과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것을 국민들이 인정할까?

또 우려스러운 일이 있다. 현재 야당 대표가 여러 가지 범범의 의혹을 받고 재판 중에 있는데, 그의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서명이 지난달 8일에 시작하여 한 달이 조금 지난 이달 11일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한다. 야당 대표에 대한 1차 판결은 이달 15일쯤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를 무조건 지지하는 사람들이 사법부를 위협하는 행동은 옳지도 정당하지도 못하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이다. 누구라도 범법을 하게 되면, 그에 상응한 대가를 치루게 된다. 만약 야당 대표에게 죄가 없다면 법정에서는 무죄를 선고할 것이고, 죄가 성립된다면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극렬 지지자들이 나서서 무죄 판결을 촉구한다면 사법부가 왜 필요하며, 법은 왜 있어야 하는가?

우리는 정치 지도자에 대한 지지도 필요하지만, 결국사유가 명백히 있는 사람이 어떤 무조건 그를 지지하고 감싸서는 안 된다. 그런 일들을 국민들이 걸러내지 못한다면 이 나라는 망하는 것이고, 심각한 독재자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 땅에서 자유민주주의를 꽃피게 하는 것은, 당연히 국민들의 몫이다. 국민들조차 정의와 공정을 무시한다면, 결국 국가는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없게 된다. 우리 국민은 120만명의 민주노총이나 특정 정당에게 일방적으로 끌려가서는 안된다. 국민들의 바른 목소리를 통하여 잘못된 길로 가는 나라를 바로 잡아야 한다.

법의 잣대가 일정하지 않으면 그 법은 선량한 사람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권력자들에게는 오히려 도피처가 됨을 알아야 한다. 정치의 수준은 국민의 수준과 같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동정

한기총, WEA 이단 의혹 해명 촉구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정서영 목사)가 WEA(세계복음연맹) 최고위층의 이단성 의혹에 대한 해명을 촉구했다. 2025

WEA 서울총회 조직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한기총은 지난 11월 13일(수) "WEA 서울총회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구절이나 의장은 자신들에 대해 제기된 이단성 의혹을 해명하라"고 밝혔다.

기감본부 일영연수원로 임시 이전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감동회장 김정석)가 서울 광화문 본부를 경기도 양주 일영연수원로 임시 이전하기로 했다. 은퇴 목회자를 위한 은급 기금 확충과 교단 재정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이전으로 기감은 지난 11월 21일(목) 서울 종로구 기감 본부 교회에서 제36회 총회 첫 총회실행부위원회를 열고 본부 이전 안건을 통과시켰다.

한동대 법학부, 모의재판 최우수상



한동대학교(총장 최도성) 법학부가 제16회 국제인도법 모의재판 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한동대 팀의 수상은 지난 2018년 우승에 이어 6년 만이다. 지난 11월 2일(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개최된 대회에서 한동대 팀은 가상의 무력충돌 상황에서 인공지능 기술 활용과 민간인 보호에 관한 법리 분석을 선보이며 최우수 피고인 변론서상을 받았다.

여성공간 남성출입금지법안 제출



미국의 낸시 메이스 공화당 하원의원이 최근 '생물학적 남성의 여성 공간 출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하자, 의회에서 최초로

트랜스젠더임을 밝힌 한 의원이 '극우 극단주의'라며 반발했다. 낸시 메이스 의원은 18일(이하 현지시각) 해당 법안 사본과 함께 "생물학적 남성은 사적인 여성의 공간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트윗을 남겼다.

홈페이지: www.ucts.org

A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25학년도 사이버신학연구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대학원 사이버신학연구원은 사명은 있으나 지역적, 시간적 여건 등으로 출석 수업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신학과정입니다. 소명의식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 온라인(인터넷)으로 교과목을 수강하여 이수학점을 취득함으로써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자격**

학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3년 6학기 (140학점)	1. 만18세 이상인 성인 남녀 2. 소명의식이 있는 자 3. 신앙경력 5년 이상인 자
신학과 (편입생)	2년 4학기	1.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하는 자는 이수한 학점에 따라 학년 결정

2. **제출서류(각 1통)**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전화 요청시 우편발송
② 최종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 증명서
③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생
④ 주민등록증본(3개월 이내 발급)
⑤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⑥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안내**
① 원서교부 및 접수: 수시
② 서류심사 및 면접: 수시
③ 전형료: 20,000원
계좌번호: 국민은행 061737-04-005354(예금주 사이버신학연구원)

4. **접수방법**
①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① 졸업 후 전도사 임명자격 부여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 부여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02)2678-5181 e-mail: ucts5181@naver.com

● **원서교부 및 접수: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02)2678-5181**

http://gd.ucts.org

A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목회대학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25학년도 사이버목회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대학원은 사단법인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훈련기관으로서 교단 소속 사역자가 목사인수를 받기 위해서는 필수로 대학원을 졸업하여야 한다.

● **교육목적**
본 대학원은 정통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제반 신학이론과 오순절 신학을 연구, 교수함으로써 점차 한국과 세계의 교회를 이끌어 갈 올바른 신학적 이해와 인성과 지성을 갖춘 영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 **원훈**
말씀충만, 성령충만, 목양일념, 온 세상 만민에게 복음전파.

● **문의처 및 주소**
■ 문의처: 02)2678-5181 FAX: 031)944-5181
■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양평동5가 90-3) 사이버목회대학원 교학처 (우)07205
■ http://gd.ucts.org, e-mail: ucts5181@naver.com

1. **모집학과 및 지원 자격**

학과	과정	수업연한	지원자격
목회학과	목회학 석사 (M.M./Master of Ministry)	3학년	● 본 교단 소속의 목사 또는 전도사 ● 본 교단 신학교 졸업자 ● 타 교단 신학교 졸업자(4년제) ● 타 교단 교역자로서 본 교무위원회의 응시 허락을 받은 자

2. **전형 방법**: 서류 전형 및 면접
3. **전형일정** ① 원서 교부: 수시 ② 원서교부처: 본 대학원 행정실 및 대학원 홈페이지 ③ 원서 접수: 수시 ④ 합격자 발표 및 합격자 등록 기간: 개별통보
4. **전형료** ① 전형료: 30,000원 ② 계좌번호: 국민은행 061737-04-005354(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5.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1부 - 최종신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추천서(소정양식) 1부 - 반명함판 사진 1매
- 주민등록증본(2개월 내 발급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혼인사실관계) 1부
- 목회자 소속, 재직 증명서 1부(해당자)

6. **특전 및 기타사항**
- 본 대학원 졸업자는 졸업과 동시에 목회학 석사(Master of Ministry/교단인정) 학위를 수여하며 교단 목사로서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 본 대학원 강의는 매주 일요일 홈페이지에 업로드 됨.
-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유희와 도덕 그리고 성품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는 합격 발표 이후에도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대학원 http://gd.ucts.org 에서 출력 작성 후 E-Mail, 혹은 우편으로 접수 가능.

● **원서교부 및 접수: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02)2678-5181**

'제주평화인권헌장안' 폐기 촉구...제주

제주지방회

제주지방회(회장 안재홍 목사)에서는 지난 11월 19일(화) 오전 9시 제주특별자치도 기독교교단협의회(회장 박병해 목사)의 제25기 신 임원진 6명이 제주특별자치도를 방문 오영훈 도지사와 환담을 나누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 기독교교단협의회는 12월 2일(월) 오후 4시 제주도청 로비에서 성탄절감사예배와 함께 성탄트리 점등식을 갖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제주도기독교교단협의회 부회장이며 약법대응특별위원장인 김건수 목



사(제주한마음교회)는 제주도가 제정 선포하려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내용과 흡사하여 제주도민들의 갈등과 불안을 조장할 수 있고 헌장이 선포

되면 오히려 역차별의 우려가 있으니 기존의 헌장 안을 아예 폐기하거나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서 순수한 선언문으로 교체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바른 복음전파 위해 뜨겁게 기도

부산지방회

부산지방회(회장 정기영 목사)는 지난 11월 12일(화) 낮 12시 경상북도 청도군 풍각면 덕양리 1743에 위치한 세움교회 청도수양관에서 월례회를 갖고 교단과 나라를 위해 뜨겁게 기도했다.

이날 1부 예배는 지방회 총무 김태우 목사(순복음삼동교회)의 사회로 시작해 윤혜영 목사(순복음주안미교회)의 대표기도, 박정옥 목사(순복음새생명교회)의 성경봉독, 지방회장 정기영 목사(순복음세움교회)의 왕상 18:1-2 말씀을 본문으로 한 '영적전쟁



의 원리'라는 제목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설교 후에는 주신말씀을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고 김연옥 목사(행복한선교회)의 헌금기도, 전임회장 고영권 목사의 축

도교 예배를 마쳤다. 이어진 2부 월례회에서는 지방회 각종 회무를 보고·처리한 후 각자의 목양지로 돌아갔다.

예수이름교회 입당감사예배 복음, 성령, 선교, 다음세대 핵심가치 실현

인천지방회

인천지방회(회장 김성규 목사) 예수이름교회(담임 김진원 목사·원내사진) 입당감사예배가 지난 11월 24일(주일) 오후 3시 인천시 계양구 장제로 새성전 2층 본당에서 드려져 2019년 1월 1일 창립된 이래 5년 11개월 만에 새성전에 입당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

이날 입당감사예배는 FOV 위시의 찬양으로 시작하여 예수이름교회 김진원 목사의 성경봉독, 지미선 찬양사역자의 축사, 인천공영합신우회의 특송, 빛과소금의교회·백석대신학대학원 교수 장창영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장 목사는 살전 1:2-7 말씀을 본문으로 '본이 되는 교회'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믿음이 있어야만 역사가 일어난다. 예수이름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인 줄 믿는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로 섬기고 헌신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애쓰신 담임 김진원 목사님과 성도들의 노고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



면서 참석자들을 축복했다. 이어 다음세대 인천시여자협의회장 류찬영 목사의 축사, 청주중앙순복음교회 당회장 김상용 목사의 영상 축사, 김일환 교수 외 4명 프레이즈 앙상블의 특송, 기독교직장선교연구소장 문영용 목사의 권면, 김진원 목사의 광고, 장창영 목사의 축도로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쳤다. 김진원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5년 11개월 만에 새성전 입당감사예배를 드리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전하고 성령이전을 위해 천일 작정 기도가 시작되었고 하나님

님의 기적 속에 지난해 12월 11일 현재 건물에 매입하고 문물과 헌신 속에 지난 10개월 동안 건물 전체를 셀프로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등 많은 분들이 헌신하였으며 많은 도움의 손길과 또 온 교회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며 지금까지 왔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넘치길 기도한다고 전했다. 예수이름교회는 첫 마음을 잃지 않고 복음, 성령, 선교, 다음세대 핵심 가치 속에 여호와와 함께 세우고 가며 한결같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어 갈 것을 다짐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탁구를 통한 선교확장

예하성 스포츠 선교회 산하 탁구선교회

예하성 스포츠 선교회 산하 탁구선교회(회장 엄기설 목사)는 지난 11월 18일(월) 오전 11시 충북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 115번길 34 소재 한소망교회(담임 정의섭 목사)에서 11월 탁구 정기모임을 갖고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스포츠인 탁구를 통한 선교사역 확장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고 운동하며 활력을 얻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모임에 앞서 드린 예배는 탁구선교회 문찬우 목사(예수온선교회)의 사회로 시

작되어 김윤배 목사(중앙생교회)의 기도, 사회자의 성경봉독, 정의섭 목사(한소망교회)의 특별연주, 최창만 목사(은혜순복음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최 목사는 마 6:31-33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설교를 통해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실 때 마귀에게 첫시련을 당하여 이긴 것이 먹는 것에 관한 것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늘 넘어졌던 것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도 이 '먹는 것'에 관해 자유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세례요한처럼 '회개하라'라고 외칠 수 있는 당당함은 본문 말씀과 같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2부 기도는 조현동 전도사(은혜서원교회)의 인도로 "교단, 나라, 민족복음



장로 권사 임직예배, 충성하는 사명자 다짐

경남지방회 임직예배

경남지방회(회장 유영주 목사)는 지난 11월 10일(주일) 오후 5시 경남 김해시 삼안로 77번길 16-4에 위치한 김해순복음제자교회에서 장로 권사 임직예배를 드렸다.

이날 1부 예배는 전임 지방회장 및 지방회 총무 황용연 목사(은혜와평강교회)의 사회로 시작해 지방회 부회장 조명식 목사(새장유제일교회)의 대표기도, 사회자의 성경봉독, 지방회장 유영주 목사(엘베크교회)의 집전 1:12-17 말씀을 본문으로 한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는 제목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2부 장로임직식은 지방회장 유영주 목사(엘베크교회)의 집례로 임직자 박종우 장로의 서약 후 안수위원장 전임 지방회장 및 지방회 총무 황용연 목사(은혜와평강교회), 전임 지방회장 윤성수 목사(진주은평교회), 직



전 지방회장 광규섭 목사(화복한교회), 지방회장 유영주 목사(엘베크교회), 신동철 목사(김해순복음제자교회)의 안수기도와 약수례에 이어 신동철 목사(김해순복음제자교회)의 가운착의, 유영주 목사의 임직패 수여와 공포 순으로 이어졌다. 계속된 신금화 권사 임직식에서는 집례

자의 서약과 공포, 임직패 수여 후 임직자 자녀 가족들의 축가, 강수현 권사(양문교회)의 축가, 직전 지방회장 광규섭 목사(화복한교회)의 권면, 이택규 목사(이레선교회)의 축사, 박종우 장로의 감사 및 광고 권우석 목사(창원순복음교회)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은혜 가운데 마쳤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섬에서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

경남지방회 가을야유회

늦을 만(晩) 땅 지(地) 만지(地)는 다른 섬에 비해 사람이 늦게 정착했다는데서 유래하지만 2017년 국립공명명품마을 14호 '마을을 만지는 섬, 만지도'로 조성되면서 알려지게 되었고 지금은 가고 싶은 섬에서 살고 싶은 섬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만지도는 깨끗한 섬과 바다를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자연경관으로 유명하다. 푸른 바다와 연계된 450여 m의 데크길을 걷는 풍경은 방문객들의 눈길을 사로 잡기에 충분하다. 특히 섬 전체를 감싸고 있는 산책로는 만지도의 매력을 한껏 느낄 수 있는 곳이다. 2-4



시간 코스 산책로를 따라가다 보면 쪽빛바다와 소나무 숲, 아름다운 남해바다 풍경을 모두 감상할 수 있다. 경남지방회(회장 유영주 목사)는 지난 10월 14일(월) 통영 연명항에서 배를 타고 15분이면 도착하는 거리에 있는 만지도로 가

을야유회를 다녀왔다. 회원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무공해의 자연 아름다운 청정 자연의 아름다운 섬 만지도에서 쪽빛바다와 소나무 숲, 아름다운 남해바다 풍경을 모두 감상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갖고 자연을 몸으로 느끼고 돌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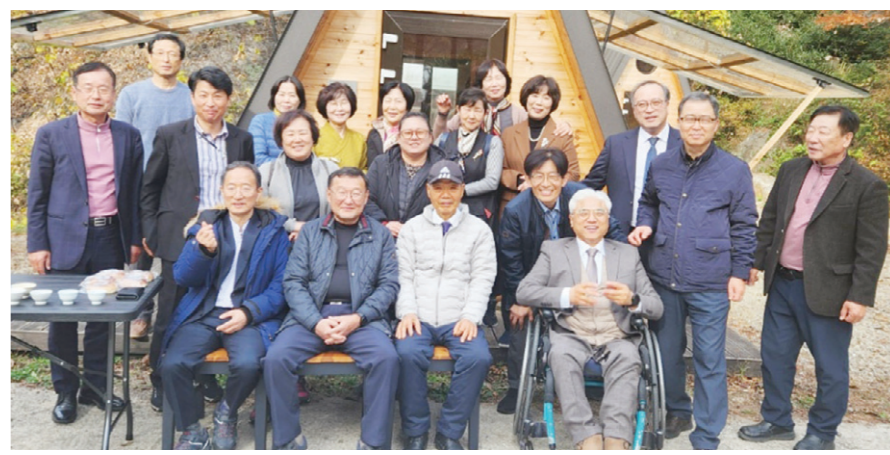
선한목표와 온전한 결실, 하나님 뜻을 이루자

경남지방회

경남지방회(회장 유영주 목사)는 지난 11월 25일(월) 오전 11시 영남순복음교회(담임 김기근 목사)에서 11월 월례회를 개최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단과 지방회와 개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한편 각종 회무를 은혜 가운데 마쳤다.

이날 예배는 지방회 서기 박정호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햇빛교회 허양수 목사의 기도, 사회자의 성경봉독, 지방회 부회장 조명식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조 목사는 장 11:7-8 말씀을 본문으로 '천상회의(바벨탑사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려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고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셨다. 그럴 때 그들은 온 지면에 흩어졌고 그 당시에 만들고자 하



는 도시를 건설할 수 없었다. 그들이 그 지역이 온전히 파괴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때 비로소 그들은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자들끼리 모여서 성읍과 탑을 쌓을 수 있었던 것처럼 선한목표와 온전한 결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될 것"을 강조하고 회원들을 축복했다.

이어 회계 최명예 목사의 헌금기도, 지방회장 유영주 목사의 축도 순으로 예배를 마치고 곧바로 2부 회의에 들어가 각종 보고자료와 회무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영남순복음교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오찬을 함께 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뒤 각자의 목양지로 향했다.



화, WCCA와 WEA 동맹에 반대, 열방 선교를 위해"를 주제로 한 기도회를 인도하고 사회자의 광고 후 최창만 목사의 축도로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쳤다.

예배 후 회원들은 한소망교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오찬을 함께한 후 탁구장으로 이동하여 연습경기과 친선경기, 레슨을 하는 시간을 갖고 활력 넘치는 시간을 가졌다.

모임을 마치면서 열심으로 경기하고 함께해준 회원들을 격려하고 선물을 나누며 2024년 11월 정기 모임을 은혜 가운데 마쳤다.

제7회 예방총연, 제26회 예방연 정기총회 개최

대표회장 이광용 목사 재선임... '성령과 말씀으로 새롭게 출발하자' 주제로 열려



대표회장 이광용 목사

사)대한예수교장로회총연합회(대표회장 이광용 목사)는 지난 11월 15일(금) 오전 11시 기독교회관 2층 대강당에서 제7회 예방총연, 제26회 예방연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화일들을 격려하고 말씀중심의 사역을 통해 한국교회를 바로 세우는데 주력해 나가기로 했다.



국교회가 회개하고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겠다. 성령의 불로 충만케하여 주심으로 흠어져 영적으로 마른 뼈처럼 생명력 없이 두려워 떠는 이 백성도 살아있는 군대로 거둔다기를 기도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를 사모하고 그 말씀이 들려올 때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생명력을 일으키는 영적 존재로 거둔다게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총회원들을 축복했다.

후 예방보수합동총회 임원들의 헌금찬양이 있었다.

대표회장 이광용 목사의 인사말에 이어 자문위원 법인이사 원동인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 대표회장 이광용 목사의 인도로 총회에 들어가 각종 회무를 처리하고 정관에 의거 인선위원회에서 임원진을 일부 개선하기로 결의했다. 예방총연은 새로운 회기에도 계속해서 '한국교회 이대로 좋겠다'를 주제로 한 세미나를 이어가기로 했다.

예방총연 제7회기 신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대표회장 이광용 목사

고문 김일식 목사 육육수 목사 김기형 목사 영영수 목사 정태래 목사 김수영 목사 염정호 목사 송현 목사 이태주 목사

상임회장 안병삼 목사 변권능 목사 오선미 목사 조규연 목사 하석수 목사가 각각 주제별 지도를 인도한

진평연, 비혼 출산 지원 법안 강력 규탄 "건강한 가정 지켜야"

"비혼 출산과 동성 결합 지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책이 아니다"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이하 진평연)은 11월 21일, 이재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강하게 비판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해당 법안은 비혼 여성과 동성 커플을 대상으로 정자 기증 및 매매를 허용해 출산을 지원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진평연은 성명서를 통해 "법안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근본적인 접근이 아닌, 동성 결합을 지원하고 건강한 가정의 가치를 훼손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고 규탄했다. 또한 "법안은 프랑스의 사례를 인용해 비혼 출산을 정당화하고 있지만, 프랑스의 출산율은 감소하고 있다"며 해당 주장의 허구성을 지적했다.

진평연은 프랑스가 비혼 출산을 장려한 배경에는 동성 간 동거를 합법화하기 위한 PACS(시민연대계약)의 도입이 있었음을 강조하며, "비혼 출산 비용이 높은 프랑스의 출산율은 1.79명으로 하락했다. 이는 비혼 출산이 출산율 증가의 해결책이 아님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비혼 출산 비율이 4.7%에 불과하다는 것은 결혼을 기반으로 한 가정의 중요성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음을 증명한다"며, 아이의 양육에 가장 적합한 환경은 아버지와 어머니로 구성된 가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진평연은 "건강한 가정이란 태도가 무너질 경우, 사회적 갈등과 가정 해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진평연은 성명서를 통해 법안의 철회와 함께 실질적 대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저출산 문제의 해결은 비혼 출산 지원이 아니라, 양육 부담을 줄이고 가족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며, 정부가 추진 중인 늘봄학교 사업, 일과 육아의 양립 지원, 출산 가구 주거 지원과 같은 정책을 우선시할 것을 주장했다.

506개 단체가 연합한 진평연은 이번 성명서를 통해 건강한 가정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가치를 수호하며, 법안 철회를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예고했다. 또한 "비혼 출산 지원 법안은 저출산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더 큰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며 국민적 관심과 지지를 호소했다.

진평연은 앞으로도 건강한 가정의 가치를 지키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책임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한미동맹 발효(發效) 70주년 기념 논평

한미동맹은 신앙을 바탕으로 한 동맹이므로 양국 교회는 청교도 신앙을 잘 지켜나가자

1953년 10월 1일 한미 양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조인(調印)하였다. 하지만 "본 조약은 각자의 헌법상 수속에 따라 비준되어야 하며 그 비준서가 양국에 의하여 워싱턴에서 교환되었을 때 효력을 발생한다."라는 제5조에 따라, 그 효력은 1954년 1월에 이뤄진 양국 의회의 정식 비준(批准)과 해당 비준서 교환이 이루어진 11월 17일 다음 날부터 발생하였다. 따라서 올해 11월 18일은 한미동맹 발효 70주년이다.

당시 미 국무장관 존 포스터 델레스(J. F. Dulles)는 1953년 8월 5일 한국에서 양국의 상호방위조약의 의미를 "한국이 결코 혼자 가 아니라는 사실과, 적들에게 우리는 반드시 말한 대로 행동한다는 점, 그리고 우리 양국이 서로 단결하여 협조하는 한, 한국이 아시아에서 자유의 최전선이라는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이라고 요약했다. 작년 2023년 경북 철교 소재 다부동전적기념관에 세워진 이승만·트루먼 대통령 동상 사이 기림비에는 이 사실이 국문과 영문으로 새겨져 있다. "우리는 바로 여기서 자유(자유)세계를 지켜냈다(We Defended the Free World Right Here)."

살림나비는 한미동맹 발효 70주년을 기념하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재확인한다.

1. 굳건한 한미동맹은 확실한 성격적 가치 위에 바로 선 자유로운 미국을 전제로 한다.

미국이 자유와 신앙이라는 공국의 가치와 체제를 버린다면, 한미동맹은 무의미하다. 지난 11월 5일에는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다. 이번 미 대선은 양측 모두 '미국 민주주의의 수호'를 캠페인 구호로 내걸 만큼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체제를 시험하는 대결이었다. 우리 양국의 기독교인은 사회주의적 경제 정책뿐 아니라 성경적 가치관에 전면 반대되는 동성혼 및 트랜스젠더 조장법 등을 펼쳐온 최근 미국 정부의 행보를 심히 우려한다. 또한 미국 민주주의의 뿌리가 다름 아닌 미국 기독교회에 있다는 명백한 사실을 애써 지우고 있는 실태를 우려한다. 우리는 미국의 민주주의가 성경적 자치(自治)를 실행한 초기 미국 청교도들의 경험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과, 18세기 후반 미국의 독립과 건국 당시 국부들이 다른 어떤 정치철학자나 법학자보다 모세를 가장 많이 인용하며 헌정공화국을 세웠다는 사실, 그리고 지난 250년 미국 역사의 발전 가운데 교회는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해 왔다는 사실을 기억한다. 사실상 자유

민주공화제는 종교개혁의 결과로 세워진 근대 정치체제이다. '근대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레오폴트 폰 란케(Leopold von Ranke)는 "미국을 건국한 것은 사실상 칼뱅이다"라고까지 말했다. 우리는 자유민주공화제의 종주국인 미국이 그 위대한 역사를 다시 긍정하며 성경적 가치관을 회복하기를 기대한다.

2.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미국의 복음주의 신앙의 회복을 기대한다.

미국의 진보적인 언론들은 지속적으로 민주당 해리스 후보의 우세를 기사화 했지만, 11월 5일에 치러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가 경합구 7개주에서 모두 승리하며 선거인단 312명을 확정하여 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트럼프 당선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미국의 복음주의 교회들이 전폭적으로 트럼프 후보를 지지했다는 사실이다. 미국 복음주의 교회들이 트럼프를 지지한 것은 그가 복음주의 교회의 가치관을 실천할 것을 약속하였기 때문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후보 시

뒤집으면서 미 연방대법원은 임신 15주 이후 임신중단을 전면 금지한 미시시피주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6대 3으로 합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인해 개별 주에서 임신중단을 금지할 수 있게 됐다. 미국에서 15주 이후 임신중단이 시행되고 공립학교에서 동성애 교육 금지 등 비롯한 성경적 가치가 정부정책으로 힘있게 추진되게 되었다.

3. 한미동맹의 바탕은 양국 기독교인들의 신앙동맹이다.

대한민국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조선에서의 개화부터 시작해 일제로부터의 독립, 그리고 자유민주체제로의 건국에 이르기까지, 교회가 그 중추적인 역할을 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미국 청교도 선교사들을 통해 세워진 한국교회는 독립운동의 뿌리였고, 근대사의 주역이었으며, 대한민국 건국의 원동력이었다. 일제에 의해 선교사들이 쫓겨나고 교회가 압박당하던 때에도 영미권 교회와의 접촉을 통한 한국인들의 공공의 교가 독립운동의 지속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지난 70년 한미동맹의 바탕에는 청교도 전통에 기반한 양국 기독교인들의
굳건한 신앙동맹이 있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건강한 한미동맹을 위해
양국의 기독교인들은 복음주의적 신앙고백과 그에 따른 바른 가치관을 바탕으로 한
상호간 교류 및 영적 지지를 지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건국에도 역시 이승만 초대 대통령과 친미 기독교 정신이 가장 큰 추진력을 제공했으며, 건국 이후로도 대부분의 외교원이 개신교회에서 배출되었다.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도 양국 기독교인들은 미국의 신속한 참전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고, 이후 군사작전에서도 한국말에 능통했던 미국 선교사 2,3백명과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매우 실제적인 영향력을 발휘했다. 지난 70년 한미동맹의 바탕에는 청교도 전통에 기반한 양국 기독교인들의 굳건한 신앙동맹이 있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건강한 한미동맹을 위해 양국의 기독교인들은 복음주의적 신앙고백과 그에 따른 바른 가치관을 바탕으로 한 상호간 교류 및 영적 지지를 지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4. 한국교회도 복음주의 신앙으로 연

합하며 미국 복음주의 교회와의 연합을 강화해야 한다.

한국교회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진보 세력들이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에 강력하게 반대하며 성경적 진리를 파수하여 왔다. 이번 제4차 로잔 대회를 인준 송도에서 개최하면서 발표한 협의회 선언문에서 한국교회의 주도로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힌 것은 청교도 전통에 기반한 복음주의 신앙의 큰 진전으로 평가된다. 한국교회는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세력을 막아내고 성경적인 진리를 파수하며 세계 복음주의 교회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신도하여 예수 그리스도도 유일한 구원자임을 믿는 신앙으로 세계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겠다.

그러한 가운데 한국교회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계기로 청교도 전통의 미국 복음주의 교회와 힘을 합쳐 미국에서 동성애 합법화를 폐지하는 운동을 전개하여 세계 복음주의 교회와 다시 한번 성경적인 진리로 돌아오는 계기를 만들어야 하겠다. 한미동

맹은 청교도 정신에 기반한 신앙동맹이므로 우리는 복음주의 신앙의 구현을 위해 양국의 교회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올바른 신앙을 확산시킬 뿐만 아니라 세계 복음주의 교회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겠다.

5. 앞으로의 한미동맹, 이제는 자유통일이다.

서두에 언급한 다부동전적기념관의 이승만·트루먼 대통령 동상 기림비에는 뒤 편에 또 다른 문구가 적혀 있다. "형제의 약속, 이제는 자유통일이다(It is Time for a Free and Unified Korea)." 자유세계의 보루이자 최전선인 한미동맹의 결심을 다지게 하는 문구이다. 자유를 위한 한미 양국의 전쟁은 우리의 생명만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방어적 싸움이 아니다. 그것은 70년 전

적 친분을 내세워 우크라이나 전쟁을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반하는 휴전 강요, 그리고 ICBM 자체와 북핵 허용, 미군 주둔 지위를 상업주의적으로 정의 및 철군 계획 등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다. 미국 복음주의 교회 지도자들은 이러한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은 미국의 청교도 가치를 훼손하고 서방자유국가와의 연대 및 자유민주주의를 중시하는 미국의 국격을 훼손한다는 사실을 충언해주어야 한다. 미국은 중국이라는 전체주의 국가의 패권을 아시아에서 방어하는 것에 군사대국이 된 대한민국의 한미동맹은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미국은 유럽에서 소련의 동진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소련 우위의 정책을 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미국은 지성인들과 복음주의 지도자들은 트럼프 2기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가 서방유럽 나라들과 한국, 일본, 호주 등 세계 여러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의 상호존중과 협력의 아름다운 유산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미국 복음주의 교회는 트럼프 정부에 대하여 충언을 해야 할 것이다.

8. 한국교회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하여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한미동맹의 공고화를 위해 기도해야 하겠다.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으로 기독교 가치의 구현이 기대되는 측면도 있지만, 미국 국익을 우선시하는 정책이 추진되는 가운데 한미동맹의 약화를 우려하는 분위기도 없지 않다. 한국교회는 이러한 시기에 깨어 기도해야 하겠다. 지금까지 한국교회와 미국교회 사이에 긴밀한 신앙의 교류가 지속되면서 양국 기독교인들의 신앙적인 유대 강화는 가운데 한미동맹이 청교도 정신에 기반한 신앙적 가치를 바탕으로 인간의 자유를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는데, 앞으로 더욱 그러한 발전이 공고해지도록 힘써 기도해야 하겠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앞 길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항상 깨어 있어야 하겠다. 그리하여 한미동맹이 공고해지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가 꽃피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겠다.

2024년 11월 18일
살림을 꾸리는 나비행동

의정부시민과 함께 인문학 강의

'존중이 존중을 낳는다', 신한대 이가령 교수의 품격대화법

신한대학교 인문도시 지원사업단(사업단장 최에스더 교수)은 우리글진흥원 이가령 교수를 초청하여 '우아한 노년을 위한 품격 있는 대화법' 강연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 31일 의정부시 녹양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진행된 이번 강연에서 이가령 교수는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어른들이 힘들게 노력해주신 덕분"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특히 사회적으로 어르신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중요성을 강조하며, 존중과 긍정의 대화가 가진 힘에 대해 설명했다.

이 교수는 현대 사회에 맞는 존중 사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상대를 높여주는 호칭을 사용할 때 관계가 더욱 부드러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정적인 말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긍정적인 표현으로의 전환을 통해 더 행복한 일상을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연 참석자들의 반응도 뜨거웠다. 한 수강생은 "존중과 긍정적인 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며 "신생님"이라는 존칭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다른 수강생도 "우리가 살아온 시간들이 존중 받아야 한다는 교수의 말씀에 큰 위로를 받았다"며 강연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번 강연은 신한대학교가 교육부 /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인문도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신한대학교는 의정부시를 문화와 인문이 공존하는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인문 소양 강화와 지역 정체성 확립, 행복한 공동체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신한대학교는 의정부시와 협력하여 인문과 문화가 어우러진 도시 브랜드를 구축하고, 민·관·학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인문 자산을 발굴하며 시민들과 학술 활동의 성과를 공유해 나갈 계획이다.



뇌사 장기기증인 유가족 장기기증 홍보

"편견을 넘어선 용기, 장기기증자 유가족이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

이정숙(82세, 여) 씨는 7년 전 세상을 떠난 외아들 정희섭 씨(기증 당시 47세)의 목소리가 여전히 귓가에 생생하다. 어릴 적부터 남다르게 따뜻하고 나누기를 좋아했던 그는 목사를 꿈꿨다. 그러나 지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난 아버지를 대신해 홀어머니를 부양하고자 치과의사의 길을 선택했고,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등록금과 생활비를 스스로 벌며 학업을 이어갔다. 졸업 후 대학 선배의 병원에서 일했던 정 씨는 2017년 자신의 병원 개원을 앞두고 있었다.

여느 날과 다름없던 금요일 저녁, 정 씨는 갑자기 목을 가누기도 힘들 만큼 고통을 호소했다. 마침 교회에 가려고 준비 중이던 어머니 이 씨가 괴로워하는 아들을 발견하고 급히 병원을 찾았지만, 뇌출혈이 발생한 정 씨는 다시 깨어나지 못하고 뇌사 판정을 받았다. 평소 의사로서의 본분을 잊지 않았던 아들을 떠올린 어머니 이 씨는 고심 끝에 장기기증을 결심했고, 2017년 6월 15일 정희섭 씨는 5명의 생명을 살리고 하늘나라로 떠났다. 이후 5년간 거동이 어려울 만큼 큰 상실감 속에서 지냈던 이 씨에게 장기기증에 대한 사회의



편견은 또 하나의 큰 상처였다. "아들 장기기증하고 돈 많이 받았겠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 씨는 마치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고통을 느꼈다고 말했다.

장기기증 편견 맞서는 뇌사 장기기증 유가족들의 용기

(제)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하 본부)는 지난 10월 30일, 북한산국립공원 도봉산 둘레길 일대에서 이정숙 씨와 같이 뇌사 장기기증을 통해 가족을 떠나 보낸 유가족 40여 명이 장기기증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본부가 2022년 실시한 뇌사 장기기증인 유가족(이하 도나페밀리)들의 심층 인터뷰에 따르면, 장기기증에 대한 오해와 부정적 인식은 우리 사회에 여전히 깊게 자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가에서 기증인 예우 차원에서 장제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에 대한 예곡된 소문이 퍼지면서, 다수의 도나페밀리는 '돈 주고 가족을 팔았다'라는 부당한 비난을 듣고 장기기증에 대한 회의감을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체계적인 취업 지원 청년고용협의회 진행

성결대, 2024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성결대학교(www.sungkyul.ac.kr, 총장: 김상식)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가 11월 1일(금) 성결대 재입관 7층 701호 회의실에서 안양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관내 대학(계원예술대학교, 안양대학교, 연성대학교, 한세대학교)과 공동으로 '2024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청년고용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지역 청년과 대학생들에게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안양고용복지플러스센터, 경기도 일자리재단, 안양고용복지플러스센터 주무관, 안양시 청년 두드림 공간 센터장, 경기경영자총협회 등 경기도와 안양시 내 다양한 유관기관의 관계자 약 20명이 참석해 기관의 특화된 사업을 공유하고 청년 취업을 위한 협업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회의에서는 △2024년 각 기관 사업 성과 공유 △우수사례 발표 △2025년 청년 취업 협업 방안

논의 등으로 구성되어, 청년 취업, 기업 모집, 기관 간 상호 협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성결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의 김용규 처장은 "오늘 협의회 자리가 지역 내 유관기관과 대학 간 연계를 통해 거버넌스 활동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며 "앞으로 성결대학교가 함께 협력하여 관내 청년들에게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큰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성결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의 김용규 처장은 "오늘 협의회 자리가 지역 내 유관기관과 대학 간 연계를 통해 거버넌스 활동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며 "앞으로 성결대학교가 함께 협력하여 관내 청년들에게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큰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제4회 아신 청소년 미디어콘텐츠 공모전

미디어 활용 관심 공유, 다양한 교육 미디어 콘텐츠 나뉨

아신대학교(총장 정홍열) 교육연구소에서는 지난 11월 20일(수) 제4회 "아신 청소년 미디어 콘텐츠 공모전"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교육 분야에서 미디어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교회교육과 기독교학교에서의 미디어 활용에 대한 관심을 공유하고, 다양한 교육 미디어 콘텐츠를 나누며 격려하는 기회로 삼고자 하는 취지에서 실시된 본 공모전은 금년으로 4회차를 맞이했다.

기독교교육에서 미디어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의 중요성으로 개최를 시작한 ACTS교육연구소장 이수인 교수는 미디어의 영향력과 함께 좋은 미디어를 만드는 것과 분별하는 것을 강조하며 참여한 수상자들의 은사를 칭찬하고 개발할 것을 독려했다.

공모전에는 본교 기독교교육과 미디어학과 전공 교수 및 외부 미디어 전문가로 이루어진 전문심사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일반심사의 점수가 반영되었으며,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 △대상 준혁군명(미안한 만달레이 그레이스 아카데미 MK) (Ethan: Unwavering Witness)
- △금상 두레국제학교 방송팀(두레국제학교) (Love, and Compassion)
- △장려상 박병찬(두레국제학교) (빛나기 위한 과정)
- △장려상 대상주시조(Faith International Academy Davao) (꼬리에 꼬리를 무는 주시조 이야기)
- △장려상 강윤현, 장인웅(구세군영등포교회) (Dear, My Next Generation)

가족세트전도

박영수 목사 // 평내순복음교회,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원장

가는 곳마다 전도! 전도!

어찌 어찌 감하지 않을 수 있리라. 생명이여 영원한 생명이여, 피 흘리지 않고는 거둘 수 없는 고귀한 열매여. 예수생명 전하기 위해 우리 선진들의 헌신의 노고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누리는 신앙의 소중함. 어찌 어찌 감하지 않을 수 있리라.

인도 선교에서 스텝 중 가족세트전도 사무총장 이수 교수는 델리에서 캠퍼타로 향하는 비행기에 탑승하기 위해 9시간이나 공항 내에서 정박하고 있는 동안 몇 사람에게 영어로 영접기도 시키고 기차 안에서 계속 영접기도를 통하여 영혼구원하는 사역에 주력했다. 전적으로 박영수 목사의 영접기도훈련 덕분이다.

필리핀에서도 골목골목을 다니며 딱치는 대로 한 번에 두 사람씩 영접기도를 했는데 자연적으로 되어진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전도와 박영수 목사의 전도훈련 덕분이다. 물론 성령님께서 하신 것이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린다! 인도에서는 주일대예배 가족세트전도 대표총재 박영수 목사의 설교와 치유사역이 있었다. 치유사역 때 현장에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 막혔던 돌이 빠지고, 소변을 잘 보았다고 감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특별히 전도와 박영수 목사에게는 현장에서 실제적 치유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성령의 기적적인 역사가 오늘도 내일도, 가는 곳마다, 선포하는 곳마다 나타나고 있다.

지지난주 일본단기선교 다녀오면서 노숙자사역하는 한국인 목사님들 일본 오사카 유니온교회에서 복음전과 집회를 통하여 은혜로운 말씀의 시간이었다. 일본인은 사역에 실패 했어도 노숙자가 필지언정 가정이나 골목에 가지 않는 자존심이 있다. 그런 노숙자들을 한국 목사님께서 노숙자 사역을 몇십 년 하고 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초과파적으로 매일 모이는 부천시 부인로에 있는 정요셉 목사가 시무하는 초대교회에서 2부 순서에 이수 교수 사회로 진행되었다. 특강에 가족세트전도 대표총재 박영수 목사의 열강에 선교와 전도활동으로 전도에 대한 도전을 받고 동기부여가 되었다.

대표총재 피종진 목사 한복운에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북한 선교를 위하여, 한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의 시간으로 성령 충만한 시간이었다.

행정기자인 미션타임즈 첫 예배에 박영수 목사의 설교로 크게 전도에 대한 사명감에 모든 목사들이 도전받았다. 고교시절 목포공생원에 위문 갔었는데 51년 만에 방문했다. 모든 어린아이들이 영접기도로 구원받기를 소원한다. 이렇게 가는 곳마다 전도! 전도! 전도에 대한 말씀뿐이다. 자녀께나 전도, 전도 뿐일세.

가족세트전도 사무총장 이수 교수
평내순복음교회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121-10
031)592-1691, 010)3730-2573

하나님이 주신 천년초 식품이 간헐적 단식에 최고의 식품입니다



70인 천년초식품

천년초의 효능

- 1)폐활성물질**
1 손상된 신체조직복구(각종 염증을 다스림)
2 암세포 성장억제, 각종 암의 예방(취실함)
(*고려대학교 손용석 교수님 압축으로 세계특허)
- 2)플라보노이드**
1 성인병의 주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
2 노화억제, 항산화, 항염, 항암예방(원광대연구논문)
3 고혈압, 저혈압, 당뇨, 고지혈증, 백내장, 급성간염에 탁월(경희대연구논문)
4 뇌혈관계 및 동맥경화 기능에 탁월, 뇌세포가 살아남(학계보고)
- 3)타식폴린** : 퇴행성 관절염, 골다공증, 관절염, 통풍, 오십견, 류마티스관절염, 강직성 척추염(줄기를 붙여도 탁월)
(전북대연구논문)
- 4)호흡기, 위** : 위염, 위궤양에 탁월(서울대연구논문)
- 5)사포닌** : 면역력 증가
- 6)칼슘** : 홍화씨의 24배, 멀치의 9배, 우유의 50배, 감의 343배, 딸기의 240배, 머루의 600배 들어있음
(호서대연구논문)
(*천년초를 복용하면 뼈가 새로 만들어 진다는 엄청난 연구논문 발표됨)
- 7)식이섬유** : 타식물(과일류, 채소류, 곡류)과 비교불가(호서대연구논문)
식이섬유가 많아 다이어트에 최고식품 변비 즉시 개선
- 8)불포화 지방산** : 고등어의 3배 오메가3, 6 함유로 식품중 가장 많이 들어있음
- 9)비타민C** : 알로에보다 8배, 오렌지보다 25배, 사과보다 48배, 딸기보다 11배로 식품중 가장 많이 함유(전북대연구논문)
- 10)기타성분** : 단백질, 탄수화물, 화분, 지방, 아미노산, 마그네슘 등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음 연구를 통해 발표됨.
- 11)아토피, 피부질환 개선**에 탁월한 효과

*간, 폐, 위, 기관지, 대장, 췌장, 신장, 자궁, 갑상선, 심장, 유방에 효과 입증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천년초를 섭취하시면 큰 도움이 됨.
*유방·장기, 암 부위에 마늘처럼 천년초를 찢어서 환부에 붙이면 효과가 뛰어나.

백년초는 멕시코 산으로 독성이 있습니다. 천년초는 토종 한국산으로 독성이 없습니다. 천년초와 백년초는 완전히 다른 종입니다.



*본제품은 식약처(성분검사)를 필함

*천년초는 인체에 무해하며 독성을 지니지 않음(서울대학교 천연물과학연구소 발표)






목포시내산교회

제작번호 기업 010-9884-5594(조경숙) **농협 176112-51-020809(조경숙)**

본사 대표 방철성·조경숙
(목포시내산교회 안수집사: 권사 부부)
010-2731-5594, 010-9884-5594
010-2731-5594, 010-9884-5594

믿음으로 생각 깊은 곳으로

이역주 목사 // 한국교회언론회 대표, 칼빈대 전 교수, 대석교회

교만한 불신자



18세기 말 프랑스의 교만한 무신론자 볼테르(Voltaire)는 인생 말년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고 걱정이 생겼다. 그것은 자신이 그토록 비난했던 교회가 볼테르를 교회묘지에 안장하는 것을 거부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이다. 그래서 사람을 교회 사제에게 보내어 자신의 지난 날 과오들, 교회를 향한 독한 말들을 철회하며, 주님의 교회에 대하여 자신이 저지른 잘못들을 용서해 달라고 간청했다.

그런데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건강을 되찾았다. 그리고 다시 옛날의 허영과 죄악의 낙을 따르게 되었다. 사람들에게 극장에서 월계관을 수여받고 열광하는 군중에 휩싸여서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그가 누린 이 마지막 승리가 이제 막 회복단계에 있던 건강을 망쳐 놓았다. 건강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한 것이다. 그는 곧 죽고 말았다.

그가 임종 직전에 성당의 사제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구주이심을 고

백하라는 재촉을 받게 되었는데, 볼테르는 대답을 강요받자 돌아누우면서 희미한 소리로 "제발 그 사람을 거론하지 마시오. 그리고 나로 평안히 죽도록 놔두시오"라는 말을 하고는 곧 숨을 거두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시 14:1)는 말씀처럼 교만하여 어리석은 볼테르는 그렇게 영혼의 방황을 비극으로 마감했다. 자신 뿐만 아니라 그 현란한 화술로 많은 사람들을 불신앙의 늪으로 끌어들이는 볼테르는 "12명이 기독교는 세웠으나 자신은 혼자서 무너뜨릴 것이다. 장차 100년 안에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라는 교만한 말을 했는데, 그가 죽고 난 후 100년이 되지 않아 그의 집은 스위스 성서공회가 매입하여 성경을 발행하게 되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잠 9:10)

초대시

전혜수 // 은혜와진리교회 권사

진실함의 능력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진실함입니다. 진실함 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게 무슨 능력이 있어 하늘보좌 아버지 하나님을 뵈을 수 있겠는지요?

거짓된 사람의 속성에게서 오직 하나님은 진실만을 보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진실함이 사람에게겐 어려운 과제 중 하나입니다.

오직 그분의 은혜 안에서만 거짓을 벗고 진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보혈의 능력을 힘입게 되면 거짓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 사랑의 능력이 아니면 진실은 거짓의 그 두터운 벽을 뚫고 나오지 못합니다.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 아니면 진실은 희미해져 그 빛을 잃고 맙니다.

선한 것 하나 없는 나를 불러 선한 일을 하도록 부르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진실의 힘을 맛보며 살아갑니다.

진실함은 하나님 보좌까지 이르게 하는 능력이 되고 사람의 마음을 녹이게 하는 능력이 되게 하십니다.



시편 145:18 절을 주일 새벽 마음에 담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도다>

사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시민의 핵심은 권리와 책임이다. 그런데 우리의 시민 의식의 형성 과정을 살펴보면 왜곡의 연속이었다. 우리는 권리 주장에만 익숙해져 있다.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에 다닐 때는 사회에 헌신하는 사람이 되라는 훈화를 많이 들었다.

그런데 요즘은 기독교인들도 그런 얘기를 잘 안 한다. 심지어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도 줄어들고 복 받아서 잘 먹고 잘 사는 얘기가 가득하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되지만 한다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살면 된다는 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안타깝게도 본다.

지금 우리 사회는 자유만 있고 책임은 실종됐다. 그렇다면 정치는 좋아지고 있나? 정치는 더 심각하게 나빠지고 있다. 자기들만 옳고 자신과 다른 생각과 판단을 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죽일 듯이 달려든다. 죄를 지어 사법기관에서 판결을 내려도 내 생각과 다르면 거리에 나와 사법기관을 검박하기도 한다. 내 뜻과 다른 때를 쓰고 법을 뜯어 고치며 패거리 정치를 일삼는다.

다수를 이용하여 오직 한 사람을 위해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해 주려고 온갖 충성을 경쟁하듯 상대를 터무니없이 비난하고 다수를 이용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려고 불쌍해 보일 정도로 인간 힘을 쓰고 있다. 국민들은 그동안 정치인들의 행태를 너무나도 잘 보아왔다. 눈앞의 이익을 보려고 법을 뜯어 고치고 제도를 파괴했던 것들이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정치적 상황이 바뀌며 자신들에게 울무가 되어 땅을 치며 후회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정치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한국 정치가 잘되고 살아나려면 586세대가 물러가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 틀린 말이 아니다. 이념과 진영을 사수하는 것이 인생의 신념으로 굳어져 있는 지금의 이 세대는 민주주의를 출산시키는 했지만 그 민주주의를 육성시키는 일에는 실패했다는 분석이다.

이렇게 막무가내 식으로 가다가는 민주주의를 죽일 수도 있다. 이념과 진영 사수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지금의 이 정치관에서는 타협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치킨게임(chicken game)이다. 치킨게임이란 어떤 문제를 둘러싸고 대립하는 상태에서 서로 양보하지 않다가 극한으로 치닫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다. 그야말로 'all or nothing' 이다. 전부 아니면 전부 말이다. 그렇다면 왜 정치관에서 아주 중요한 타협과 협치가 되지 않는 것일까?

사회학자의 말을 빌리면 조선 시대 500년을 이어온 과거 시험 때문이라고 말을 한다. 1년에 세 번 과거를 봤고, 한 번 볼 때마다 1만 5000명이 전국에서 몰려들었다. 채점 기준은 누가 사서삼경의 원문에 맞게 쓰고 해석했느냐였다. 거기에는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만 있다. 독일처럼 변증법이라는 건 도무지 없다는 말이다. 그래서 정의가 사라지고 만 것이다. 정의란 타협을 통해 도달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오롯이 시비를 가리고 정답을 찾는 데만 몰두해 온 것이 오늘의 경쟁 사회, 경쟁 교육을 낳았다는 분석이다. '너 죽고 나 살자' 만 있는 것이다. 고통주는 사회가 되고 만 것이다.

조선은 5월에 한 번 장을 보는 나라였고, 쇠국 정책을 펼쳤던 나라였다. 상업의 공간을 확장할 생각은 하지 않고 농업 경제에 머물렀던 나라였다. 그렇다고 전쟁을 통해 영토를 확장할 생각도 하지 못한 나라였다. 그러나 경제 규모는 정제되어 있는데 인구는 늘면서 점점 가난해지고 빈부의 양극화가 심한 사회였다. 게다가 노동력이 부족하니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들게 자국민을 노예로 두는 노비 제도가 성행했던 나라가 되고 만 것이다. 여우굴질끝에 대한민국은 가난과 빈곤을 딛고 세계 경제 10위권 나라로 성장했고 작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이 일본을 추월했고 올해엔 그 격차를 더 늘리는 나라가 된 것이다.

그렇다고 사회 전 분야가 성장했느냐? 아니라는 말씀이다. 가장 뒤떨어진 분야가 정치라는 것인데, 그 정치가 민생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서 안타까운 일이다. 산업화를 이루고 민주주의를 이룩했지만 지금 민주주의가 실종하는 중이라는 진단이 가슴 아플 뿐이다.

고(故) 이건희 삼성회장은 한국의 정치는 4류라고 했고, 민주당의 김*원 의원은 한국 정치판을 GSGG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 GSGG류도 못 되는 것만 같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마 7:15)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대하 20:20)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 편집인: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

● 발행 겸 편집인: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 인쇄인: 배성한

● 연락처: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 ▶ (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504)027-0897

웹하드: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다길 5

●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계좌: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24학년도 사이버신학연구원·사이버목회대학원 졸업예배



2023년 졸업식 풍경

- 일 시: 2024년 12월 19일(목) 오전 11시
- 장소: 은혜와진리교회 안양성전
- 참석대상: 사이버신학연구원·사이버목회대학원 졸업 대상자
- 참고: 1) 졸업 대상자는 졸업식 당일 오전 9시 30분까지 안양성전 1층으로 도착(예행 연습)
2) 졸업가운 수령은 졸업식 당일 안내를 드릴 예정이오니 시간 엄수하시어 도착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본 사이버신학연구원·사이버목회대학원 학사일정에 따라 2024학년도 졸업식을 시행하게 됨을 알려드리오니 앞날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JESUS ASSEMBLIES OF GOD IN KOREA 사이버신학연구원·사이버총회목회대학원